

〈제 749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KJ카드, '실속챙겨 한가위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실속챙겨 한가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하고 올해까지 42년 동안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선물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해 준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고객님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신입 행원 30명 공채...18일까지 원서접수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3년 정규 신입 행원 공채 원서접수를 오는 18일까지 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중견 행원(대졸)과 초급 행원(고졸)이며 채용 규모는 30여명이다. 인터넷 접수한 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 일반상식, 인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 지역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

#### ◆추석 선물 세트 판매 돌입



(주)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는 오는 8일부터 본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우선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 품목을 마련했다. 국내산 굴비, 갈치, 옥돔은 겨울부터 봄 사이 제철에 잡은 원물을 사전에 수매해 급속 냉동을 시켜 식품안전

검사를 통과한 상품만을 엄선했다. 안전한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내년 설 물량까지 충분한 수량을 준비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선물세트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지역 농어민들이 자신 있게 만든 함평 육포, 담양 한과 등 지역 로컬 선물세트를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 ◆초등학생 대상 ‘그린 캠페이너’ 기후 환경교육 펼쳐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가 올해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12개 초등학교 52개 학급에 재학중인 137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교육기부 우수기업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 받도록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 전기차 전용 타이어 프로모션 제공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가 금호타이어가 전기차 충전 통합 솔루션 기업 '한국전기차인프라 기술(이하 KEVIT)'과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KEVI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 전용 금호타이어 온라인몰에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마제스티9 EV 솔루션 TA91'과 '크루젠 EV HP71' 등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할인가로 제공한다. 또 연말까지 전기차 전용 타이어 2개 구매 시 KEVIT 포인트 2만 포인트, 4개 구매 시 포인트 4만 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다양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기차용 운전자들에게 다각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7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건설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24개소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향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주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남대학교병원

### ◆ 안영근 병원장,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한독은 제20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원장은 2020년 11월 전남대병원장으로 취임 후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전남대병원의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역량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영근 병원장은 "권위 있는 한독학술경영대상 20번째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내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전남대병원 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직원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간담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안영근 병원장, 강택원 국제메디컬센터장, 박규원 국제메디컬센터 팀장 등 병원 보직자와 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구자연 세계로메디투어 대표, 김기남 플래티늄 대표, 나현정 CL파트너스 코디네이터, 방주혁 휴먼브릿지 대표, 이치민 엠제이루스코 팀장, 조세화 CL파트너스 팀장, 조연상 제노카파 대표, 최한겸 제이피에리츠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영근 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이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선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PS

### ◆“근로자 안전 최우선 경영”‘안전문화 정착’ 역량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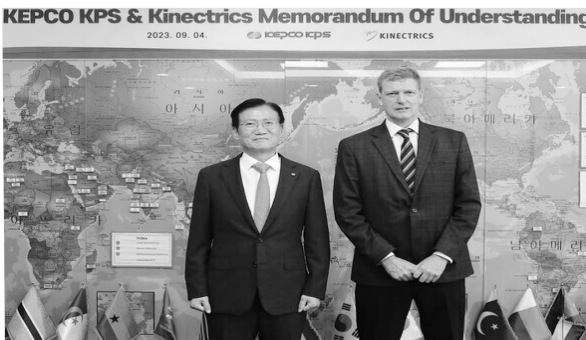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나주 본사에서 협력회사 대표자를 초청해 ‘2023년 제1차 경상정비 협력회사 대표자 안전경영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1일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9개 협력회사 대표자들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전KPS의 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안전경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등을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모든 근로자의 마음과 행동에 안전의식이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안전 문화 정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국내·외 원전정비 협력체계 구축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4일 나주 본사에서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춘 Kinectrics와 국내·외 중수로 정비용 장비 개발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홍연 사장은 “Kinectrics는 캐나다에 30개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7개 국가에 지사를 운영하는 등

중수형 원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현장 시공 능력을 갖춘 한전KPS와의 시너지로 해외 중수로 정비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춰 향후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19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고독한리더, 위대한 생각의 힘 · 강사 :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고문)

1619회 금요조찬포럼은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고문을 초청하여 「고독한리더, 위대한 생각의 힘」을 주제로 리더가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경영에 원동력이 되는 생각에 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시선의 높이에서 인간은 내가 어디까지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모든게 결정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45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5층 거실에서 밖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15층에 아파트 거실에서 밖을 보면 5층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입니다. 45층에서 밖을 바라보면 또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생각의 높이 따라 보이는게 다르다고 최진석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데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업은 항상 한계와 싸웁니다. 그 한계를 깨고 나아가면 생존이 지속되고 한계에 갇히면 파멸합니다. 한계를 뚫는 그 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결정 됩니다.

오너 경영은 고독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경영방법도 오너 경영입니다. 오너 경영의 다른 말은 독재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10년 10만 마일을 선언했을 때 회사 임원들은 반대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책임은 본인이 진다며 진행 시켰고 지금의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기업들 대부분이 오너의 결정으로 한 단계 도약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해외의 빅테크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등 독재 경영하는 기업 들입니다. 독재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은 당장 이익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일론머스크가 돈도 안되는 우주여행 사업을 하고, 우주선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때 회사 직원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사업화가 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것은 돈 안되는 기술을 개발했던 스페이스X였습니다.

기존의 상식, 기존의 성공 방정식 등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말도 안되는 일을 해내는 프로젝트를 문샷 싱킹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처음 시장조사를 했을 때 약 30%의 사람이 해당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문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을 개발 했고 현재는 스마트폰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삼성이 카메라 화소를 높이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핸드폰을 접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기업을 말하라하면 애플입니다.

리더가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고독한 생각을 거듭해 기업이 한계를 깨고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든 결과들입니다. 광주 경충 회원분들도 생각의 근육을 키워 한계를 돌파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1. 경제 동향

### ◆ 경총,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비교」보고서 발표 (9.3)

#### 〈 주요 내용 〉

- 한·미 반도체 대표기업(4개사)의 2023년 상반기 매출액증가율은 평균  $\Delta 29.7\%$ , 영업이익률  $\Delta 9.4\%$ 로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매출액증가율) 우리나라(삼성전자/SK하이닉스)  $\Delta 36.2\%$ , 미국(인텔, 퀄컴)  $\Delta 23.3\%$
  - (평균 영업이익율) 우리나라(삼성전자/SK하이닉스)  $\Delta 24.8\%$ , 미국(인텔, 퀄컴)  $6.0\%$
  - ※ 반면, 대만 반도체 대표기업 TSMC의 경영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상반기 매출액증가율  $-3.5\%$ , 영업이익률  $43.8\%$ )
- 올해 상반기 유가 하락과 경기 불황으로 정유·철강 대표기업도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자동차·인터넷서비스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냄.
  - 한미일 3개국 대표기업(업종별 각 6개사) 상반기 평균 매출액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정유]  $-8.8\%$ , [철강]  $\Delta 6.2\%$ , [자동차]  $19.6\%$ , [인터넷서비스]  $10.3\%$
- 6개 업종 국가별 대표기업(각 12개 기업)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남(2023년 상반기).
  - (매출액증가율) 일본 대표기업 평균  $7.4\%$ , 우리나라  $4.3\%$ , 미국  $-5.5\%$
  - (영업이익률) 미국 대표기업 평균  $13.7\%$ , 우리나라  $9.8\%$ , 일본  $6.3\%$
- 고금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투자·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수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



### Ⅲ. 노동경제동향

#### ◆ 경총, 「임금·HR연구 2023년 하반기호」 발간 (9.1)

- 경총은 최근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다양화, 유연화 흐름에 맞춰 금번 「임금·HR연구」 하반기호 특집주제를 “최근 근로시간 환경 변화와 인적자원 관리 대응”으로 선정
  - 금번 호의 주제발표를 맡은 최현진 콘페리 파트너는 “구성원에게 근무시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에 몰입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체계 정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연구논단에는 근로시간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평가·보상제도 ▲직원 몰입, ▲학습민첩성,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을 주제로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네 필진의 글을 수록
  - 사례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워라벨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성 높은 근무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NHN,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이후 근로시간 유연화가 진행 중인 일본의 경험을 소개
- 한편, 이슈논단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관련 최근 논의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의 기고 수록

####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9.5)

-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전년동기대비 0.9%증가)
  - \* 지난 '23.7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 다만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정부소비(Δ0.1%p), 건설투자(Δ0.5%p) 등이 하향 수정되고 설비투자(+0.7%p), 수출(+0.9%p), 수입(+0.5%p) 등이 상향 수정
  - ※ 분기별 성장률(% , 전기비) : 0.8('22.2q)→ 0.2(3q)→ Δ0.3(4q)→ 0.3('23.1q)→ 0.6(2q)
- **(지출항목별)** 정부소비(Δ2.1%), 수출(Δ0.9%), 건설투자(Δ0.8%), 민간소비(Δ0.1%)는 전기대비 감소했고, 설비투자(0.5%)는 전기대비 증가
- **(경제활동별)** 건설업(Δ3.9%)은 전기대비 감소했고, 제조업(2.5%), 서비스업(0.3%)은 전기대비 증가

###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 2/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7% 감소(전년동기대비 0.8% 증가)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8월 수출입 동향」 발표 (9.1)

- **(총괄)** 2023년 8월 수출은 518.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4% 감소했으며, 수입은 510.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8% 감소

※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5.8%) 감소 전환 후 11개월 연속 감소

▶ 수출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14.5('23.4)→ △15.4(5)→ △6.0(6)→ △16.4(7)→ △8.4(8)

- 8월 무역수지는 수출(△8.4%)보다 수입(△22.8%)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8.7억달러 흑자를 기록(3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27.5('23.4)→ △22.1(5)→ 11.5(6)→ 16.5(7)→ 8.7(8)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수출의 약 75% 차지) 중 선박, 자동차 등 6개 품목 수출은 증가, 컴퓨터, 석유제품, 이차전지 등 9개 품목은 감소

- **(국가별)** 對중동(6.7%), 對EU(2.7%), 對미국(2.4%)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 對중남미(11.1%), 對아세안( 11.3%), 對중국( 19.9%)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

#### ◆ 통계청,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9.5)

-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해 2023년 4월(3.7%) 이후 4개월 만에최대폭으로 상승

※ 소비자물가는 '23년 2월(4.8%)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으나, 8월에 다시 3%대에 진입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3.7('23.4)→ 3.3(5)→ 2.7(6)→ 2.3(7)→ 3.4(8)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교통(△2.5%)을 제외한 의류 및 신발(7.8%), 기타 상품및 서비스(6.0%), 음식·숙박(5.2%) 등 11개 부문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21.1%)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 Ⅲ. 노동경제동향

3.9%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4.3%)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2023년 8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2. 노사 동향

### ◆ 정부는 불법·부당한 노사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추진

○ 고용부는 9. 4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사 대상 및 기간 : 2023. 5. 31~8월(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

- 고용부는 ① 근로시간면제제도 활용 실태, ②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수준 및 별도수당 지급여부, ③ 노조 운영비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진행

○ 특히 고용부는 금번 조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 한도 초과, ▲무급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등 위법 사례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지급 등 위법 소지 사례 확인

※위법확인 사업장 : (공공) 9개, (민간) 59개

※위법소지(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위법으로판단가능) 사업장: (공공) 16개, (민간) 94개

- 고용부는 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 대상 기획 감독(9월 중), ② 규모·업종을 고려한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

○ 한편, 기재부는 9. 5 회계 공시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부 시행 추진

\*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납부하는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5 ~ 9. 11

- 당초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시행을 앞당겼다고 발표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 공동파업을 위한 투쟁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 5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공동파업 관련 산하 노조 투쟁 준비현황 및 투쟁계획 발표

### Ⅲ. 노동경제동향

- ※공공운수노조산하노조현황: (쟁의권 확보)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이후 쟁의 찬반투표 예정) 국민연금노조  
(교섭결렬 및 노동위 조정신청) 부산지하철노조
-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 성과급제 폐지, ▲노동개악 중단 등을 주요 의제로 공공부문 노정교섭 요구